

정신의학 문헌에서 살펴본 “조현(Attunement)”의 의미 : 현상학적-인류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조현병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¹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²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³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임상정신약물학연구소⁴

정성훈¹ · 손정우² · 김용식^{3,4}

Understanding of “Attunement Disorder” from Phenomenological-Anthropological Perspective : Inquiry into the Use of the Term “Attunement” in Psychiatric Literature

Seong-Hoon Jeong, MD, PhD¹, Jung-Woo Son, MD, PhD² and
Yong-Sik Kim, MD, PhD^{3,4}

¹Department of Psychiatry,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²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gju, Korea

³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ongg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oyang, Korea

⁴Institute of Clinical Psychopharmacology,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 Goyang, Korea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has decided that the existing nomenclature “Schizophrenia” should be replaced with “Attunement disorder” in order to mitigate prejudices from the general public. In this process, “attunement” was meant to express the harmonious relationship and organic integration among the various substructures of global mental functioning. However, the term “attunement” and related concepts had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discourses surrounding the fundamental concept of schizophrenia. In this regard, the historical vicissitudes of the term “attunement” in the context of schizophrenia research was discussed. The term “attunement” is an English translation of Heideggerian expressions “Befindlichkeit” and “Stimmung”. It is used by Heidegger to convey the emotional experience of Dasein’s inextricable entanglement with the surrounding interpersonal world. Heidegger’s philosophical works form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so-called Phenomenological-anthropological psychiatry. Psychiatrists influenced by this approach argue that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uffer from a sense of alienation and bewilderment resulting from loss of normal attunement. In addition, they stress that the loss of attunement brings about distorted self-experience, which leads to strange and uncanny life experiences exiled from intersubjectivity based society. From th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mind or consciousness is not a solipsistic Cartesian reason confined to the brain, but an intentional existence embedded in the interpersonal and intersubjective worlds. In the developmental period, inten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ness and the world has been acquired from repeated shared experiences with other people via intersubjectivity. The intersubjective experiences also contribute to maintenance of solid attunement even after reaching mature adulthood. Whatever the reason, losing the tacit understanding of the world will cause disintegration of the foundation of intersubjectivity and confusion with regard to the certainties of self and the world. This state was described as “Attunement disorder”. Recent emphasis on neurobiological understanding of schizophrenia has impeded the proper appreciation of Phenomenological-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of schizophrenia, one of the valuable heritages of psychiatry. Meanwhile, the concept of phenomenological understanding or embedded cognition has recently gained renewed attention among neuroscientists studying neurobiologic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 Standing on the pivotal point witnessing the conceptual change from “Schizophrenia” to “Attunement disorder”, reappraisal of the past heritage from modern perspectives would be a valuable endeavor for advancement of psychiat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279-291

KEY WORDS Schizophrenia · Attunement · Phenomenology · Self · Intersubjectivity.

Received June 25, 2013

Revised July 30, 2013

Accepted August 8, 2013

Address for correspondence

Yong-Sik Kim, MD, Ph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ongguk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 814 Siksa-dong,
Ilsandong-gu, Goyang
410-773, Korea
Tel +82-31-961-7231
Fax +82-31-961-7230
E-mail kys@snu.ac.kr

서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이 선입관 및 편견을 낳는 주요한 요인이라 판단한 끝에, 이를 대신할 새로운 병명으로 “조현병”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¹⁾ 새롭게 탄생한 “조현병”이라는 명칭에서 “조현(調絃)”은 원래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정신을 구성하는 각각의 하부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조화로운 화음을 이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조현병의 영문 표기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여 “Attunement disorder”로 정하였다. 그런데 교과롭게도 이 용어는 나름대로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정신분열병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유럽의 정신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온 중요한 용어이다. “Attunement”란 용어를 사용해온 정신의학자들은 소위 현상학적-인류학적 정신의학(phenomenological-anthropological psychiatry)이라고 하는 고유한 학파를 이루고 있다.²⁾ 이들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붕괴로부터 발단된 셀프의 장애가 조현병의 근간을 이루며, 망상, 환청 등의 외적 증상들은 셀프의 장애로부터 파생된 이차적인 증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³⁻⁵⁾

현상학적-인류학적이라는 기치와 “조현(attunement)”이 왜 연관되는지 의아해보이지만, “attunement”란 표현이 원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사용한 “Befindlichkeit” 혹은 “Stimmung”을 영어로 번역한 것임을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⁶⁾ 하이데거적 용례에서 “attunement”란 상호주관적 “세계”에 속하게 된 개인이, 그 “세계” 속에서 느끼는 전성찰적/전인지적(pre-reflective/pre-cognitive) 감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Attunement disorder”란 상호주관성의 붕괴에서 비롯된 질병이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⁷⁾

“조현병(Attunement disorder)”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만큼, 이 기회에 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불어 조현병에 대한 좀더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현상학적 탐구가 어떤 것인지,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것이 건강한 셀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지식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덧붙여 이들 개념들은 인지과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의식의 이해라는 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난제들이다. 본고에서는 현상학적-인류학적 정신과학 전통에서 조현병의 이해를 위해 “Attunement”라는 용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덧붙여 상호주관성의 붕괴가 어떤 식으로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셀프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지 기존 가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현병의 근본 병리 : 셀프경험의 이상

현상학적-인류학적 정신의학자들은 조현병의 근본증상이 셀프의 구조적인 이상에 있다고 말한다.^{3,4)} 양성증상은 병의 단계에 따라 악화, 호전을 반복하지만, 셀프의 병리는 병전시기부터 시작하여 병의 경과내내 없어지지 않는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현병의 개념이 격렬히 논의되며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의 학자들이 셀프의 이상에 주목했던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블로일러(Eugen Bleuler)가 근본증상의 하나로 꼽은 자폐증은 셀프의 이상경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³⁾ 야스퍼스(Karl Jaspers)는 조현병 환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증상들을 다양한 차원에 걸친 셀프-의식의 이상을 통해 해석해내고자 하였다.³⁾ 민코우스키(Eugène Minkowski)는 심지어 “광증이란 판단, 지각 혹은 의지의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로지 내면 깊숙히 위치한 셀프의 구조적 이상일 뿐이다.”라 단언하였다.⁸⁾

현대에 들어와서도 셀프의 구조적 이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발병 전에 이미 자아경계의 구분, 서사적 셀프(narrative self)의 일관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셀프 이상이 발견되었다.⁹⁾ 후버(Gerd Huber)가 제안한 기본 증상(basic symptom)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셀프경험에 관련된 것이다.¹⁰⁾ Sass와 Parnas¹¹⁾는 조현병을 “셀프경험(ipseity)”의 문제로 개념화한다. “셀프경험”이란 원래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제안한 용어로, 의식에 떠오르는 모든 경험에 동반되는 “이 경험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의식적 감각을 일컫는다.^{8,10)} 사스는 이 개념을 “지향성(intentionality)”과 연결시켜, “특정한 관점을 갖고 지각을 하며, 행동을 의도하고 개시하는 지각주체, 행위주체로서의 감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들은 두 가지 셀프경험의 장애를 겪는다. 그중 하나는 성찰과다(hyper-reflexivity)로, 정상적으로는 무의식속에서 억제되어야 하는 셀프경험이 매번 의식되면서 부자연스레 경험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아감 감소(diminished self-affection)로, 자신이 주체라는 인식이 점차 약해지는 것이다. 이들은 언뜻 보기에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서로 상보적으로 매듭지어져 있다.¹⁰⁾

현상학적-인류학적 학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 즉 셀프의 이상은 조현병의 핵심병리이며, 셀프의 구조적 이상은 대인관계의 붕괴로부터 비롯된다는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셀프란 어떤 것인가? 왜 셀프경험에 이상이 생기면 고통받게 되는가? 설령 그것이 조현병의 근본증상

이라 해도, 왜 대인관계의 붕괴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오히려 불안정한 셀프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물러났을 뿐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¹²⁾

현상학자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그들의 주장을 전개한다. 1) 인간은 단순히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유기체로서가 아니라 경험과 행동의 주체로서 살아가며, 셀프경험이란 이렇게 주체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지칭한다. 2) 그런데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은 유아독존적 존재가 아니라 타인들로 이루어진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3) 이러한 세계-내-존재로서 주체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상호주관성을 근간으로 한다. 4) 조현병 환자들은 이러한 상호주관성의 바탕이 무너지가는 와중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상학자들의 전략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혹은 임상데이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이들의 논리를 따라가보는 것은 조현병 환자를 이해하는 시각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분명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셀프와 지향성

신경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온 난제 중 하나는 바로 “의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의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의식하는 주체, 즉 셀프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신경과학자들은 셀프에 대해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그런데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셀프의 개념은 다분히 데카르트적 셀프, 즉 뇌 내 어딘가에 갇혀있으면서 외부 세계와는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유아독존적(solipsistic) 존재에 가깝다. 현상학자들이 묘사하는 셀프의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후설(Edmund Husserl)이나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등은 의식 혹은 셀프가 유아독존적 존재가 아니라 세계 내에 내재되어있음(embedded)을 그들 이론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들에 의하면 셀프의 경험이란 외부 사물의 경험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르트르가 정의한 “셀프경험”에서 엿볼 수 있듯이, 셀프란 외적 사물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다. 따라서 자의식이란 외부 사물에 대한 의식의 뒷면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대상지향적 의식은 자의식을 동반하며, 대상지향적 의식이 없다면 자의식은 있을 수 없다.

현상학자들이 의식과 세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식은 항상 그 외부의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후설의 공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향성(intentionality)”이란 “의식은 무언가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에 대한(about)”의 의미를 갖는다.^{8,10)} “지향한다”는 표현은 이

곳에 있는 의식이 저곳에 있는 외부로 다가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의식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다”라는 뜻에 가깝다. 그런데 의식을 채우는 사물이란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상(phenomenon)”으로써 경험된 것이다. 따라서 의식이 외부 사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수동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비춰낸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후설은 지각 과정을 “구성(constitu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현상이란 의식이 감각자극의 일부에 주목하여, 기존의 경험이나 현재의 맥락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해석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러한 구성작용을 노에시스(Noesis),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물을 노에마(Noema)라고 칭하며, 의식은 이러한 노에시스-노에마 복합체로 채워져 있다.¹⁰⁾ 지향한다는 것은 사물을 “~로서” 지각하는 것이며,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다.⁸⁾ 이렇게 보면 “구성”과정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전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눈앞에 놓여진 의자는 삼차원 공간을 채우는 물체로서가 아니라, “높이가 적당한가”, “쿠션은 폭신한가” 등 특정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는 의자가 공부하거나 식사할 때 사용된다는 도구로서의 용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공부”, “식사”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미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단순한 사물을 의식하는 것 역시 총체적인 의미체계로서의 주위세계(Umwelt) 혹은 전체세계(Welt)를 포함하게 된다.¹³⁾

따라서 의식이 무언가를 지향할 수 있으려면 세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그 세계란 결국 타인으로 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타인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만약 의식이 외부사물에 대한 지향으로 채워져 있다면, 의식의 핵은 타인과 함께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상호주관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주관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

“Intersubjectivity”라는 말은 한국어로 “상호주관성”, “상호주체성”, “간주관성” 등으로 번역되며, 그 뜻이 명확하지 않고 저자들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해왔다. 일반적으로는 “공유된 의미체계, 즉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와중에 구성된, 이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며 암묵적으로 동의한 의견들의 집합”을 뜻한다. 한편 현상학에서는 타인을 나와 같은 주체로서 경험하는 것, 또한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경험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일부 용례에서는 무의식적 감정공유나 감정이입(empathy)을 의미하기

도 한다.¹⁴⁾ “주체(subject)”란 그 의미가 매우 애매한 개념이며,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셀프, 자아 등과 흔히 혼동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체란 “의도(intention)를 갖고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된다.¹⁵⁾

상호주관성을 최초로 도입한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셀프는 타인의 의식에 비취봄으로써만 경험할 수 있다며 애초부터 상호주관성이 셀프경험의 근거임을 강조했다.¹⁶⁾ 그러나 동시대의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는 애초에 셀프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타자에게 비취진 모습을 나의 셀프로 인식할 수 있겠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헤겔과 피히테의 상반된 주장, 즉 상호주관성이 먼저냐 셀프가 먼저냐는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현상학자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후에야 비로소 셀프의 구조가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지과학자들은 셀프가 정립되지 못하는 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물론 상호주관성도 가능하지 않다고들 말한다.

인지과학자들에게는 개인의 셀프가 타인에게 다가서는 출발점이다. 마음 이론(Theory of Mind)에서는 아이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선 먼저 스스로의 마음(셀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부 사물에 대한 지각은, 감각된 자극을 인지적으로 해석하여 내적 정신세계에 표상(representation)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상호주관성이 가능해지려면 타인의 언어와 행동 역시 인지적으로 해석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정신현상에 대한 “마음 이론”이 필요하다. 이렇듯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은 가설 연역적 방법(hypothetico-deductive)이라는 과학적 방법론과 닮은 모양을 띤다.¹⁷⁾

현상학자들은 전후를 바꿔놓는다. 이들은 타인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은, 인지적 해석 이전의 본능적 감각이기 때문에 확고한 셀프가 형성되기 전에도 상호주관적 참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은 객관적 외부세계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셀프 역시 현실감을 잃고 허깨비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객관적 외부세계에 대한 확실성은 오로지 타인의 마음에 접근하여 그들이 나와 동일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다.¹⁸⁾ 하이데거는 이런 상황에 대해, 주체는 미리 만들어져있는 세상 속에 “던져진다(throwness)”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세상이란 상호주관성을 통해 타인이 미리 엮어놓은 의미체계에 다름 아니다.¹⁹⁾

답이 먼저냐 달같이 먼저냐는 질문처럼, 셀프와 상호주관성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냐는 문제는 쉽게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다.²⁰⁾ 그러나 본고가 현상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인만큼, 이들의 입장에서 상호주관성과 셀프의 관계를 추

적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내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양측 진영의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타인의 마음 읽기 : 마음 이론의 시각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뇌 속 어딘가에 행동으로부터 동기를 유추해내는 “마음 이론”이 저장되어 있다면, 마치 매뉴얼을 참조하듯 상대의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은 Premack과 Woodruff²¹⁾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한 개인이 마음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추론과정을 통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특정한 정신상태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종류의 체계적 추론은 이론이라 불릴 만한데, 그 이유는 첫째, 타인의 정신상태는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이 이론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이론은 1) 이론-이론(Theory-Theory of Mind), 그리고 2) 시뮬레이션 이론(Simulation Theory of Mind)으로 나뉘어진다. 이론-이론에서는,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한 것은 외적 행동밖에 없으며 우리는 “믿음”, “욕구”, “의도” 등 통속심리학(folk-psychology)적 가설들을 통해 관찰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된다. 이에 비해 시뮬레이션 이론에서는,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가상적으로 세워놓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기반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주장한다.^{22,23)}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스스로의 마음만큼은 누구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투명성이 전제된다.

마음 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이론의 경우,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투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이해가 선행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반면 이론-이론에 있어서는 자신과 타인의 이해가 동시에 완료된다. Gopnik²⁴⁾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해서 타인의 마음보다 더 잘 들여다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자신의 마음이란 타인의 마음이란 중요한 것은 “마음-가설”을 적용할 수 있느냐이다. 결론적으로 마음 이론에서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¹⁴⁾

타인의 마음 읽기 : 현상학자들의 시각

셸러(Max Scheler)와 같은 현상학자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라 해서 그렇게 투명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마음 상태라 해도 전혀 불투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표정은 그 자체가 감정의 일부분이요, 관찰자가 따로 추론할 필요없이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¹⁴⁾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한다.¹⁴⁾

우리가 얼굴 근육의 뒤틀림을 보고 난 후, 그가 기쁨이나 슬픔,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상대의 얼굴을 보고 즉각적으로 슬프다, 빛이 난다, 지루해 한다고 묘사하며, 이는 심지어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노라고 말할 때도 역시 그렇다.

이 인용구는 감정과 그 외적 표현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우리는 상대의 얼굴 근육을 자세히 보고 궁리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는 신체적 공통점과 함께,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공통경험에서 비롯될 것이다. 만약 마음을 정신내부에 폐쇄되어 행해지는 어떤 것이라 경계짓지 않고, 세계를 바탕으로 뇌를 비롯한 모든 신체를 이용하여 행하는 어떤 것이라고 확장한다면, 논리적 추론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의 많은 부분을 타인과 직접 나눌 수 있을 것이다.^{25,26)}

비트겐슈타인의 사고는 체화된/내재된 인지이론(embodied/embedded cognition)을 탄생시킨 원천이 되었다. 내가 무언가를 의도하거나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몸을 이용하여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공통된 몸, 공통된 세계를 갖고 있는 타인은 짐작하거나 논리적으로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여과없이 드러나 있는 나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보고 내 마음을 읽어낼 것이다.²⁷⁾

이런 주장의 근거로, 생후 얼마되지 않은 영아들도 활발하게 대인관계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이론”은 대체로 만 4세 정도에 완성되며,⁸⁾ 초보적인 셀프 감각이 확립되는 것도 만 18개월 이후에야 가능해진다.²⁸⁾ 만약 셀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야 상호주관성이 가능하다면, 만 4세 혹은 적어도 만 18개월 이전에는 의미있는 대인관계가 불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 관찰결과들은 훨씬 더 어렸을 때도 의미 있는 상호주관적 참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생후 42분밖에 지나지 않은 영아도 자신을 쳐다보는 어른의 미소를 흉내낼 수 있으며, 생후 2개월이 되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사회적 웃음(social smile)을 교환할 수 있다.²⁹⁾ 이런 증거들은 타인과 전성찰적/전인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마음 이론이 갖춰지기 전이라도 상호주관성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덧붙여 강조할 점은, 나이가 든 후에도 이러

한 전성찰적/전인지적 소통의 양식이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마음을 추론이 아닌 직접적 지각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능력을 마음 이론과 적절히 보완해가면서 원활한 대인관계를 이루어낸다. 오히려 마음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예외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현상학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굳이 마음 이론이나 셀프의 정립이 시간적으로 앞서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상호주관성과 주체, 그리고 의도

상호주관성이 수립되기 위해선,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주체”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주체가 “의도(intention)”를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다시 “의도”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살펴봐야만 한다. 마음 이론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의도(intention)”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누군가의 행동을 목격한 후, 우리는 흔히 그의 마음 속에 그 행동의 목적 또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추론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담긴 컵에 손을 뻗는다면, 그가 “물을 마시려는 의도”를 지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현상을 해석하는 경향은 반드시 의식있는 존재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한무더기의 낙엽이 하늘로 날리면, 우리는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 버렸다”며 마치 바람에게 능동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사고한다. 이러한 우리의 사고습관을 Dennett³⁰⁾은 지향적 자세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반해 후설을 비롯한 현상학자들이 사용하는 “지향(intention)” 혹은 “지향성(intentionality)”은 그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앞서 “의도(intention)”의 의미를 포함하는 동시에 그 범위를 성큼 넘어선다. 상호주관성의 근간이 되는 주체란 “intention”을 갖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음 이론에서와 같지만, 이때의 “intention”은 능동적으로 목적하는 바라는 의미뿐 아니라, 외부를 지향하여 의식의 내용물로 삼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intention”의 의미를 단순히 “행동의 목적”이라는 의미에서, 후설적인 의미로 확장시키고 나면, 상호주관성이란 나 그리고 타인을 외부 세계를 지향하여 해석해나가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상호주관성은 우리가 객관성에 접근하는 유일한 수단임이 드러난다. 우리는 비록 순간순간 인지되는 외적 세계의 객관성을 별반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해석이 개입되지 않은 진정으로 객관적인 현실(객관성)이란 결코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미꽃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객관적 진실이지만, 서

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빨간색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의 현실을 타인과는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결국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지만 만약 내가 타인이 해석하고 있는 세계에 접할 수 있고, 나의 해석된 세계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절대적 객관성은 보장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수가 공유하는 환상에 참여하고 있음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의식은 외부 대상에 대한 해석으로 채워져있으며, 해석과정은 총체적인 의미체계로서의 주위세계(Umwelt), 혹은 전체세계(Welt)를 전제한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때의 세계란 다수가 참여하는 공통된 꿈이자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일차적 상호주관성

앞서 언급했듯이, 현상학자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고 상호주관성에 참여하는 것은 굳이 마음 이론이나 셀프가 정립되기 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셀프가 정립되는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몸은 전성찰적/비언어적으로 타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를 상호신체성(intercorporeality)이라 개념화한다.³¹⁾ 신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은 발달학적으로 가장 앞서 나타날 뿐 아니라, 의식적/언어적 사고가 정신현상의 주된 부분을 이루는 성인기 이후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남는다.³²⁾

갓 태어난 영아는 외부 대상 중에서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며, 사람 얼굴 모양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과 자신의 체성감각 사이를 연결지으며, 상대의 표정을 모방하면서 외적표현을 체험하고 습득하기 시작한다.⁸⁾ 이러한 영아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Trevarthen³³⁾은 “일차적 상호주관성(primary intersubjectivity)”이라고 명명하였다.

일차적 상호주관성은 단순히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와 감정을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 아이는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을 조금씩 변형시켜가며 따라할 수 있으며, 상대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즐긴다.³⁴⁾ Stern³⁵⁾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엄마와 아이는 서로의 발성, 억양, 제스처를 체계적으로 변형시키며 되돌려주고, 아이는 이런 놀이에 큰 기쁨을 느낀다. 스텐은 이러한 행동을 특별히 “조율(attunement)”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조율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도가 상대에게 전달되며, 자신 또한

상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다.

일차적 상호주관성의 신경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비록 침팬지에서 발견된 거울 뉴런(mirror neuron)이 인간에게도 발견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³⁶⁾ 유사한 공명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상된다.^{37,38)} 분명한 것은 일차적 상호주관성을 담당하는 메커니즘은 진화론적으로 수억년의 세월을 거쳐 획득된 장치라는 것이다.³⁹⁾

이차적 상호주관성

아이가 좀더 성장하고 경험을 쌓다보면,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아이는 타인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그들이 도구를 다루는 것을 관찰하며, 좀더 복잡하게는 그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습득한다. Trevarthen과 Hubley⁴⁰⁾는 이러한 단계를 이차적 상호주관성(secondary intersubjectivity)이라고 이름지었다.

생후 9개월에서 1살 정도가 되면 “공동 주의(joint attention)” 및 “함께 주의 기울이기(shared attention)”가 가능해진다. 아이들은 단순히 상대의 시선이 다른 사물을 향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한다. 동시에 자신이 특정한 사물을 주목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음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는 타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지만, 지능이 꽤 높다고 여겨지는 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⁴¹⁾

18개월쯤 된 아이는 상대가 끝내지 못한 과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들고 망설이는 상대를 본 아이는, 장난감을 넘겨받은 후 어떻게 갖고 노는지를 시범보인다.⁴²⁾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맥락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느슨해진 판자 옆에서 망치와 못을 꺼내는 타인을 본다면, 그가 못을 박아 판자를 고정시키려 한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감정 이입이나 이론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느슨한 판자, 망치, 못이라는 사물들이 환기하는 맥락을 읽어낸 것이다.⁸⁾

공동 주의가 가능해지는 것은 이차적(dyadic) 관계에서 탈피하여 삼자적(triadic) 관계에 돌입했음을 뜻한다. 이제부터는 나와 상대라는 이차적 관계에 사물이나 또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상대와 좀더 확장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 메를로-퐁티의 지적처럼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게 되면, 사물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타인을 주체로 지각하고 그의 관점을 흡수하면서 세계는 점점 더 흥미롭고 다채로운 곳으로 변모해간다.⁸⁾

삼차적 상호주관성

Rochat와 Passos-Ferreira¹⁷⁾는 일, 이차적 상호주관성에서 언어와 마음 이론을 통한 대인관계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로 삼차적 상호주관성 단계를 제안한다. 이차적 상호주관성의 단계가 맥락과 의미의 공유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맥락에 “나”와 관련되어 부여된 주관적 가치(value)의 공유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생후 20개월 정도가 되면 상대와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대상에 대해 “마음에 든다, 싫다”는 등의 가치를 공유하려고 하며, 만약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는 때를 써서 관철하려하거나 양보하는 등 가치를 협상하는 능력이 갖춰진다(표 1).

주관적 가치란 “나”를 전제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사물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현재 나의 계획이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상황에 대한 가치를 협상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세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 즉 나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 들어서면서 초보적인 셀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울에 비친 나와 실제 자신의 몸을 연결시키는 초보적인 셀프 감각이 형성되는 것은 생후 18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반면 두 살 정도가 되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데, 이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는 증거로 간주된다.³²⁾ 삼차적 상호주관성이 자리잡으면서 이렇듯 내적/주관적/사적인 셀프와 외적/객관적/공적인 셀프가 분리-통합되기 시작한다.

아이가 공적인 셀프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타인의 시각에 비치게 될 셀프의 모습을 대상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²⁸⁾ 이차적 상호주관성에서 상황 혹은 맥락에 처한 사물이나 타인을 대상화했다면, 이제는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여 셀프의 모습을 그려내고 이를 상대와 공유한다. 헤겔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타인의 시선”, 특히 타인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내재화하면서, 셀프의 견고성은 점점 더 상호주관성에 기대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마음 이론이 자리잡기 전인 4세 이전에 거의 완성된다. 즉 타인의 내적 마음을 전제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 공적 셀프를 통해 외부로 노출됨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공적 셀프를 통해 그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후설은 나의 몸을 만질 때 “만지는 나(사적 셀프)”와 “만져지는 나(공적 셀프)”가 동시에 이중적으로 경험됨을 지적하며, 이러한 경험이 상호주관성을 가능케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메를로 폰티는 나와 타인이 모두 몸/세계와 공통된 관계에 의해 맺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이 상호주관성이 가능해지는 시점이라고 하였다.¹⁴⁾ 세 단계의 상호주관성을 거치면서, 마야흐로 세계 속에 체화되고/내재화된 셀프가 본격적으로 태어난다.

상호주관성과 지향성

후기 구조주의의 핵심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언어로 세상을 경험하며 언어는 우리의 경험을 제약하고 규정한다. 나는 언어를 타인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언어적 표현들이 창조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언어와 상호주관성의 관계는, 앞서 언급했던 세계에 대한 이해와 상호주관성 간의 관계와 동일한 형식을 지닌다(그림 1). 만약 우리가 몸을 이용한 외적 표현이나 사회적 맥락을 좀더 확장된 의미의 언어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동형관계(isomorphism)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Lev Vygotsky⁴³⁾는 도구로서의 언어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스처나 사물 역시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담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단어가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오로지 그 단어가 실제 삶에서 사용될 때의 맥락으로부터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비고츠키의 주장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사회적 맥락이 언어보다 더 일차적임을 드러낸다.⁴⁴⁾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경험을 제약하고 규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몸을 이용한 표현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한 어휘들, 즉 좀더 포괄적이고

Table 1. Stages of social connectedness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구분	맥락	행동 표지자	메커니즘	획득 연령
반영 (Mirroring)	얼굴을 맞댄 상호작용	표정 모방(imitation)	본능적 자동반응	탄생 직후
1차적 상호주관성	상호교환적인 이차적 소통	전언어적/원시적 대화 (proto-conversation)	감정의 공동조절 (emotional co-regulation)	2개월
2차적 상호주관성	사물을 매개로 한 삼자적 소통	공동 주의(joint attention), 함께 주의 기울이기(shared attention)	의도를 수용/전달, 의도를 나누는 공동경험	9개월
3차 상호주관성	사물의 가치에 대한 삼자적 소통	창피함을 느낌, 셀프 인지, 소유권 주장, 친사회적 행동 (pro-social behavior)	셀프를 타인에게 투사/동일화	20개월

Adapted from Rochat & Passos-Ferreira (2009)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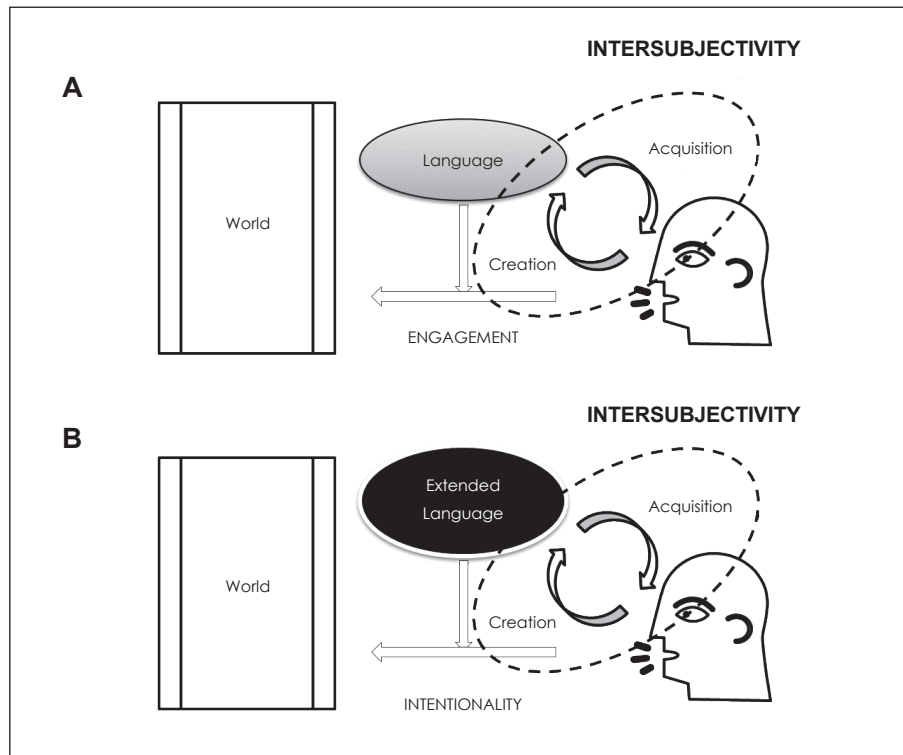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between a subject and the world via (A) language and (B) extended language. Extended language denotes socially agreed-upon gestures, customs, conventions, laws etc. Subjects participate in the acquisition, creation and use of language and extended language based on intersubjectivity.

확장된 언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언어를 통해 외현적 차원(explicit dimension)에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확장된 언어를 통해 내현적 차원(implicit dimension)에서도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언어는 물론 확장된 언어 역시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만 습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호주관성은 지향성의 출발점이 된다. 내가 세계를 해석하고 “지향”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시각들”, 즉 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이다. 물체를 지각하는 나의 태도는 항상 누군가로부터 빌려오거나 습득한 것이기에, 어느 순간에도 타인들의 시각이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유사하게 하이데거는 사물은 주체에게 “도구(tool)”로서 다가오며, 도구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사용법(know-how)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사용법은 타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후이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향할 수 있는 능력이 주체의 핵심조건이라면, 이차적 상호주관성이 자리잡는 생후 9개월에서 1년 정도면 벌써 주체로서의 탄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음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언어구사 능력 및 정신화 능력(mentalizing capacity)이 자리잡는 4살 이후에야 비로소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현상학자들은 이차적 상호주관성이 자리잡는 만 18개월에 공적 셀프와 사적 셀프가 통합되기 시작함을 반증으로 내세운다. 현상학자들은 지향성을 바

탕으로 한 주체의 모든 의식적 경험은 필연적으로 셀프 인식을 동반한다고 본다. 상호주관성→지향성→주체 및 셀프로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발달단계의 사슬을 이해하는 것은, 상호주관성의 붕괴로부터 비롯된 지향성의 혼란이 어떻게 조현병 환자의 셀프경험을 망가뜨리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조현병에서 보이는 셀프의 장애

앞서 언급했듯이 현상학적-인류학적 정신의학자들은 조현병의 핵심 병리로 셀프의 장애를 꼽고 있다. 그런데 셀프의 개념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셀프의 병리 또한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조현병 환자들은 서사적 셀프의 혼란을 경험한다고 주장되었다.⁴⁵⁾ 서사적 셀프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엮어나감으로써 형성하는 자아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성과 공개성을 특징으로 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일관성있게 지속되는 “나”이자 동시에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다. 이는 인간의 언어적 성향 및 사회의 가치관, 역사적 맥락 등에 의해 형성되며,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으로 간주된다.⁸⁾ 조현병 환자들은 자서전적 기억에 문제가 있으며, 그들의 삶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내거나, 타인과 자신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엮어넣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⁴⁶⁾

그런데 현상학자들이 좀더 강조하는 것은 내러티브 셀프 보다는, 보다 전성찰적이며, 역사성에서 벗어나 순간순간 느껴지는 셀프경험(ipseity)의 문제들이다. 저자들에 따라서 이를 최소 셀프(Minimal Self), 핵심 셀프(Core Self)라고 칭하기도 한다.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 혹은 주변 세계가 현실감을 잃고 낯설어보이는 경험에 시달리며, 이는 이인증/이현실증(depersionalization/derealization)을 낳는다.^{40,47)} 이현실증이 이인증을 동반하듯, 현실감각의 저하는 셀프경험의 저하로 이어진다. Kean⁴⁸⁾이 기술한 한 조현병 환자는, 더 이상 세계와 전과 같이 친숙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으며,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느낌도 더 이상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이 환자는 세계와 셀프의 관계를 그 혼란 정도에 따라 “dissolved, disoriented, disembodied self”라고 구분한다. 그는 자신이 “disembodied self” 단계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세계와 의미있는 연관을 짓기가 불가능하고 자신의 행동, 감정, 사고가 스스로에게조차 낯설다고 토로한다.

사스와 파르나스가 강조했던 셀프경험의 장애는 이 같은 경험을 잘 대변한다. 셀프경험 장애의 주된 증상으로는 세계 내에 존재한다는 현존감의 저하, 신체감각의 이상,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 상실, 경험이 “내 것”이라는 일인칭적 감각의 소실 등이 있다.⁴⁹⁾ 만약 경험에 내재된 일인칭적 감각이 소실된다면, 마치 제3자의 눈을 빌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초연하게 목격하는 듯한 비현실감에 빠지게 된다. 동시에 공허함이나 살아있다는 느낌의 상실이 뒤따르며, 스스로가 기계장치로 변한 것 같거나 의지를 박탈당했다거나 혹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이미 정해져버려 빠져나올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⁵⁰⁾

이런 병리현상의 공통점은 셀프와 세계 전반의 객관성, 현실성이 함께 허물어지며, 셀프가 세계 안에 편안히 자리잡고 있다는 둘 사이의 공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주장처럼 의식과 자의식이 동전의 양면이자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면, 세계에 대한 지향성의 근거가 무너지면서 자의식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할 결과일 것이다.

상호주관성-존재의 이해-셀프경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름 아닌 상호주관성의 기반 하에 구성되고 있는 세계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 주인공으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가 내게 주는 경험은 셀프경험의 핵을 이룬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우리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한 일인칭적 시점에서, 사물의 존재(being)를 이해한다.¹⁹⁾ 하이데거는 이러한 일인칭적 시점을 “ready-to-hand(Zu-

handen)”라고 불렀다.¹³⁾ Ready-to-hand란 세계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 언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습득한 모든 지식의 총체)을 바탕으로, 사물을 내 필요에 닿는 도구로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의 나의 계획(project)에 묻혀 살아가며, 모든 사물들은 전적으로 “나의 계획”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한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사물이 그 의미체계 속에서 갖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며, 동시에 동일한 의미체계 내에서 “내”가 갖는 가능성 또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말 대신에 현존재(Dasein)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염려하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존재양상을 기획하고 미래로 투사하며(기획투사, Entwurf), 그럼으로써 자신의 가능성 중 일부를 실현하고자 한다.¹⁹⁾ 동시에 사물이 지닌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기획투사된 나의 존재양상 그리고 이를 실현하려는 계획에 부합하는 가능성을 선택하여 사물에 부여해나간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때 세계는 내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편안한 나의 집이며, 나는 그 주인이라는 감각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ready-to-hand의 관계에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향”은 동시에 셀프에 대한 재확인(engagement)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사물에 부여된 의미는 기획투사된 나의 존재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메를로-퐁티는 기본적 셀프 감각과 몸을 갖고 세계 속에 친숙하게 파묻혀있다는 경험은 서로가 서로를 규정짓기 때문에 결코 따로 떼어 고려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¹⁾ 그가 말한 세계 속에 친숙하게 파묻혀 있다는 표현은, 전적으로 ready-to-hand의 태도를 의미할 것이다.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지향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한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통해 세계에 참여(engagement)하고, 자신의 기획에 맞게 세계에 도구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⁵¹⁾ 의식이 자신을 초월하여 외부로 지향할 때마다 동시에 확고한 셀프경험이 수반된다. 이렇듯 반복되는 셀프경험은 셀프의 구조를 점점 더 공고히한다.⁵⁰⁾

만약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인 확장된 언어를 어떤 이유에서이건 잃게 된다면, 의식은 더 이상 ready-to-hand의 태도로 세계와 마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상호주관성과 셀프의 장애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 셀프가 공고해지기 위해선 사물을 나의 기획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장된 언어를 잃게 된다면 사물과 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 셀프 역시 기반을 상실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어휘를 습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상호주관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주관적 관계가 무너지면 의식은 더 이상 정상적인 지향성을 발

휘하지 못하여 세계는 낯설고 불편한 곳으로 변할 것이며, 셀프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당혹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Attunement Disorder

“Attunement”라는 용어는 소아정신과 의사인 Stern³⁵⁾에 의해 사용된 후부터 정신과 문헌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스텐은 아이와 엄마, 혹은 임의의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에 부응하고 이를 조금씩 변형시켜 돌려주는 감정적 공명의 의미로서 “조율”을 사용했다. 이를 특히 “감정적 조율(affective attunement)”이라 하며, 경우에 따라선 “inter-affectivity”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편 거울 뉴런 이론으로 유명한 갈레세(Vittorio Gallese)는 거울 뉴런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의도 조율(intentional attunement)”이라는 표현을 쓴다. 스텐의 용례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상태에 맞춰주는 외적 행동 양태를 지칭한다면, 갈레세의 용례는 전성찰적으로 상대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본능적, 신경생물학적 기능을 지칭한다. 두 용례에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주체가 타인과 맞닥뜨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리고 있다.

스텐을 비롯한 소아정신의학자들은 주로 자폐증과 관련된 맥락에서 “Attunement”를 사용하였지만, 곧 뒤이어 다수의 정

신의학자들은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폐성향을 “Attunement”의 이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다.⁵²⁾ 이 과정을 주도한 Sass와 Parnas⁵⁾는 각각 덴마크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신의학자들로 그 전까지 유럽에 국한되었던 현상학적-인류학적 전통을 영미권에 소개한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들은 민코우스키, 베르제(Josef Berze), 콘라드(Klaus Conrad), 블랑켄부르크(Wolfgang Blankenburg) 등의 전통을 재해석한다(그림 2). 이런 와중에서 그전까지 대인관계 차원에 국한되어 논해지던 “Attunement”는 하이데거적인 의미로 확대되면서, 상호주관성의 바탕 위에 개인이 세계와 맞닥뜨리는 데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Attunement”란 “Befindlichkeit” 혹은 “Stimmung”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Befindlichkeit”을 직역하면 “Sich befinden”된 특성, 즉 “그렇게 놓여진 것을 발견하는 느낌” 정도가 된다. 하이데거는 이것이 인지적 이해가 아니라 배경을 이루는 감정상태임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Befindlichkeit”는 의미가 생성되는 원천, 혹은 의미의 복잡한 관계망으로서의 세계와 마주한 현존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상학자들은 두 가지 “Attunement”의 의미를 뒤섞어 사용하며, 따라서 “Attunement disorder”라는 용어 역시 1) 타인의 마음이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는 데서 느끼는 혼동, 2)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세계에 던져짐으로써 느껴지는 당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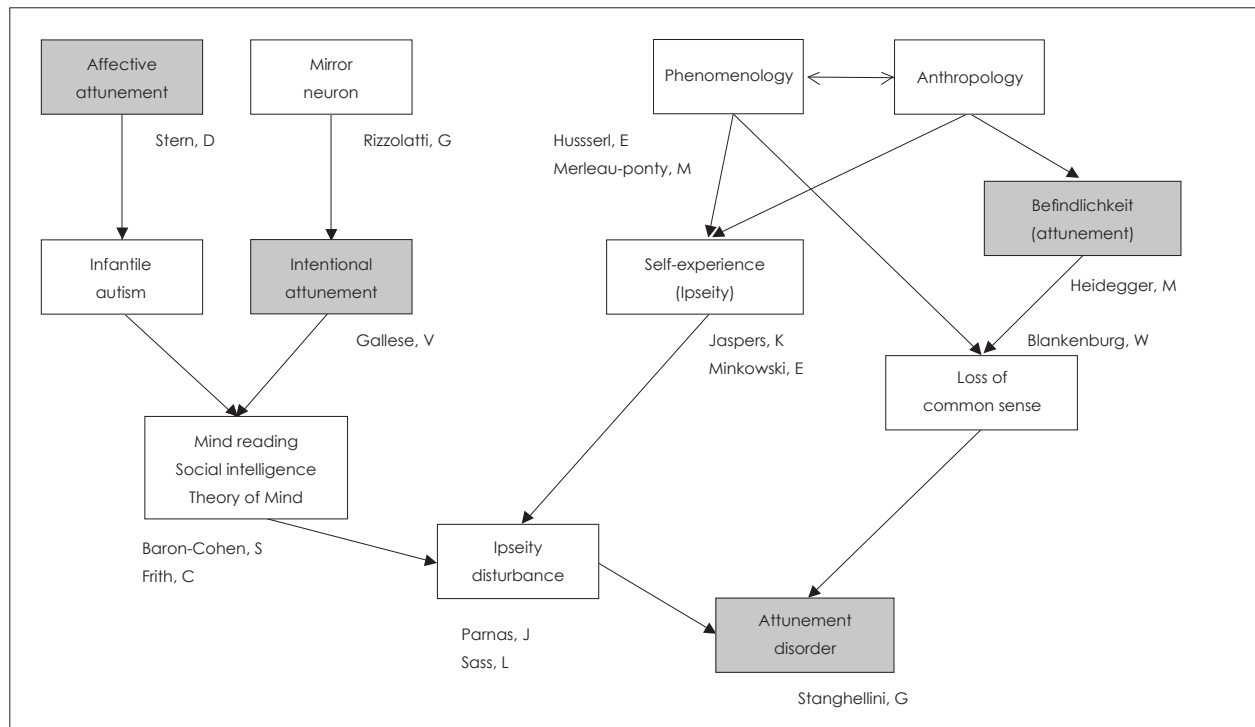


Fig. 2. A simplified overview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cept “Attunement” in psychiatric literature. Boxes in gray color depict the concepts directly related to “Attunement” and those in white depict the concepts indirectly related to “Attunement”.

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Stanghellini²⁰⁾는 “Attunement disorder” 혹은 “Disorders of attunement”란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블랑켄부르크의 이론을 차용한다. 블랑켄부르크는 “상식의 소실(Loss of common sense)”이 조현병 환자들이 보이는 자폐현상의 근본이라고 설명한다.⁵³⁾ 여기서 “상식”이란 “너무 당연해서 특별한 느낌이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 세계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이라고 정의된다.¹⁰⁾ 따라서 상식의 소실은 사물 혹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친숙함이 사라져버린 상태이며, 하이데거적으로 말하자면 존재론적(ontological)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친숙한 감정, 즉 “Attunement”의 소실을 가리킨다. 이 상태에 놓인 환자는 무의미한 공간으로서의 세계 속에서 길을 잃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기이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벽을 쌓는다. 조현병 발병 초기에 종교나 철학에 심취한다던가,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한다며 형이상학적 주제에 몰두하는 것은 이런 낯설음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⁵¹⁾

왜 갑자기 상식의 소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블랑켄부르크도 스탕겔리니도 그럴듯한 답을 내놓고 못하고 있다. 상식이 소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식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거나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정상인은 상황을 파악하고 반응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기전에 훨씬 더 많이 기대고 있다. 비록 이렇게 내려진 결정은 의식적/논리적으로 내려진 결정만큼 옳다는 확신감을 주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에게 “그렇듯하다”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하다. 자동적인 결정들은 많은 부분, 자신의 과거 경험 혹은 타인을 관찰했던 간접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며, “과거에 그랬으니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남들도 그렇게 할 것이니 나라고 문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는 식의 형식을 띤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렇듯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논리적 확실함을 요구하게 된다면, 이러한 과거경험이나 타인의 행동양상이라는 판단 기준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⁵³⁾ 어쩌면 과학적 방법론이 그리도 강조하는 객관성, 논리성, 확실성이 우리의 실제 삶 자체를 잠식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상식”을 믿지 못하게 됨으로써 혼란이 초래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후설은 “다수의 의견(doxa)”을 거부하고 “논리적 진실(episteme)”만을 추구했던 서양철학이, “doxa”에 담겨져 있는 삶에 대한 진실한 경험들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⁵⁴⁾ 그는 동시에 엄격한 논리도 그 근본은 여전히 삶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음을 확신한다.⁵⁵⁾ 조현병 환자들이 강구하는 논리란 삶의 경험, 즉 상식에 뿌리내리지 못한 부적합한 논리에 그치는지도 모른다.

상식의 소실은 또한 현재의 상호주관성을 방해하는 주요

한 요인이 된다. 성인이 되어서도 일, 이차적 상호주관성은 여전히 타인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일차적 상호주관성이 나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라 볼 때, 자기 신체에 대해 왜곡된 감각을 갖게 되는 환자들은 이러한 통로로부터 차단된다. 상식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기이한 관념들은 타인과의 의미공유를 방해하며, 타인의 마음을 읽는 중요한 근거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가오던 타인의 마음은 힘들여 풀어야하는 논리문제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상호주관성의 붕괴와 상식의 상실은 서로가 서로를 야기하면서 환자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두 축인 상호주관성의 붕괴와 상식의 상실은 모두 “Attunement”라는 하나의 용어로 종합되며, 그런 의미에서 “Attunement disorder”란 조현병의 핵심을 관통하는 용어로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결론 및 요약

본고에서는 정신분열병의 개명작업을 통해 조현병이란 용어가 새로이 사용되게 된 시점에서, “조율(Attunement)”이라는 용어가 정신의학 전통에서 차지하고 있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용어가 현상학적-인류학적 정신의학이라는 전통 위에 수립된 개념이며,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개념들을 조현병 환자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접목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정신의학자들은 정상적인 주체성(subjectivity)이 1) 셀프경험(ipseity), 2) 세계 내에 내재하는 느낌(하이데거적 의미로의 “Attunement”), 3) 또 다른 주체로서의 타인과의 관계(상호주관성)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유지된다고 본다. 이 중 어느 한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적 붕괴가 초래되며, 이렇게 된 결과가 바로 조현병(Attunement disorder)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현상학자들이 “Attunement disorder”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조현병의 병리현상은 “마음 이론”이 대표하듯 인지적 오류의 문제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이라는 것이다. 마음 이론만이 문제가 된다면, 인지재활훈련을 통해 마음 이론을 재교육시킴으로써 원할한 대인관계는 물론 셀프의 병리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⁵⁶⁾ 그러나 지금까지 본고에서 논한 현상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그러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인지는 모른다. 내적 마음과 외부 세계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고, 타인의 마음을 읽는 것이 세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면, 스탕겔리니가 지적했듯이 상식을 소실한 상태에서 쉽사리 상호주관성의 세계

에 다시 편입되기는 힘들 것이다. 스탕겔리니가 묘사한 “Attunement disorder”의 세계는 단순히 대인관계로부터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육체로부터 분리되고(disembodied), 나 자신의 세계로부터 추방되어(disembedded), 지향할 곳을 잃어버린 낯설고 두려운 세계이다.

중심 단어 : 정신분열병 · 조현병 · 조울 · 현상학 · 셀프 · 상호주관성.

Acknowledgments

본 원고에 사용된 용어 및 용어의 정의는, 철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들을 신경인지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재해석해서 사용한 용례들을 따랐기 때문에 기존 철학적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어 사용 및 특히 독일어 표현의 점검은 계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김임렬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본 원고는 수차례 거듭된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철학적 논리 전개 방식에 문외한으로서 자료를 검토하고, 이 중 정신의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고 엮어내어야 했기 때문에 이해부족으로 인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신경정신의학회 지 심사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과 조언에 힘입어 부족하나마 현재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Park JH, Choi YM, Kim B, Lee DW, Gim MS. Use of the terms “schizophrenia” and “schizophrenic” in the South Korean news media: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s and news programs in the last 10 years. *Psychiatry Investig* 2012;9:17-24.
- 2) Wiggins O, Schwartz M. Schizophrenia: a phenomenological-anthropological approach. In: Chung MC, Graham G, editors. *Reconceiving Schizophrenia*. Oxford University Press;2007.
- 3) Parnas J, Sass LA. Self, solipsism, and schizophrenic delusions. *Philos Psychiatry Psychol* 2001;8:101-120.
- 4) Parnas J, Handest P. Phenomenology of anomalous self-experience in early schizophrenia. *Compr Psychiatry* 2003;44:121-134.
- 5) Sass LA, Parnas J. Schizophrenia, consciousness, and the self. *Schizophr Bull* 2003;29:427-444.
- 6) Svenaeus F. The hermeneutics of medicine and the phenomenology of health: steps towards a philosophy of medical practice. Springer;2001.
- 7) Mulhall S. Attunement and Disorientation: the moods of philosophy in Heidegger and Sartre. In: Kenaan H, Ferber I, editors. *Philosophy's Moods: The Affective Grounds of Thinking*. Springer;2011. p. 123-139.
- 8) Gallagher S, Zahavi D. The Phenomenological Mind: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ve Science. London/New York: Routledge;2008.
- 9) Hartmann E, Milofsky E, Vaillant G, Oldfield M, Falke R, Ducey C. Vulnerability to schizophrenia. Prediction of adult schizophrenia using childhood information. *Arch Gen Psychiatry* 1984;41:1050-1056.
- 10) Paek MJ, Kang UG. Phenomenological psychopatholog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1;50:97-115.
- 11) Sass LA, Parnas J. Explaining schizophrenia: the relevance of phenomenology. In: Chung MC, Fulford KWM, Graham G, editors. *Reconceiving schizophren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7.
- 12) Nelson B, Sass LA, Thompson A, Yung AR, Francey SM, Amminger GP, et al. Does disturbance of self underlie social cognition deficits in schizophrenia and other psychotic disorders? *Early Interv Psychiatry* 2009;3:83-93.
- 13) Inwood M. Heidegger: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2000.
- 14) Zahavi D. Subjectivity and Selfhood: Investigating the First-Person Perspective. Cambridge, MA: The MIT Press;2005.
- 15) Nelkin N. Subjectivity. In: Guttenplan S, editor.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Oxford: Blackwell Publishers;1994.
- 16) Frie R. 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vity in modern philosophy and psychoanalysis: a study of Sartre, Binswanger, Lacan, and Habermas. Boston: Rowman & Littlefield;1997.
- 17) Rochat P, Passos-Ferreira C. From Imitation to Reciprocation and Mutual Recognition. In: Pineda J, editor. *Mirror Neuron Systems*. Springer;2009.
- 18) Russell M. Husserl: a guide for the perplex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2006.
- 19) Cerbone DR. Understanding Phenomenology. Acumen Publishing Limited;2006.
- 20) Stanghellini G. Disembodied spirits and deanimated bodies: the psychopathology of common sen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21) Premack D, Woodruff G.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 Brain Sci* 1978;1:515-526.
- 22) Heal J. Simulation, theory, and content. In: Carruthers P, Smith PK, editors. *Theories of theories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 23) 이기흥. Three Theories on the Principles of Folk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f Others : A reconstruction of Theory theory, Simulation theory and Embodiment theory. *철학* 2004;80:315-340.
- 24) Gopnik A. How we know our minds: the illusion of first-person knowledge of intentionality. *Behav Brain Sci* 1993;16:1-14.
- 25) Varela FJ, Thompson E, Rosch E.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3.
- 26) Gallagher S. The Practice of Mind. The practice of mind. Theory, simulation or primary interaction? *J Conscious Stud* 2001;8:83-108.
- 27) Rowlands M.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10.
- 28) Rochat P. The emergence of self-awareness as co-awareness in early child development. In: Zahavi D, Grunbaum T, Parnas J, editors.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Self-Consciousnes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2004.
- 29) Meltzoff AN, Moore MK. Infants' Understanding of People and Things: From Body Imitation to Folk Psychology. In: Bermúdez J, Marcel AJ, Eilan N, editors. *The body and the Self*. Cambridge, MA: MIT Press;1995.
- 30) Dennett DC. The Intentional Stance. Cambridge, MA: MIT Press; 1987.
- 31) Howson A. The body in society: an introduction. Cambridge, MA: Wiley-Blackwell;2004.
- 32) Zahavi D. The embodied self-awareness of the infant: a challenge to the theory-theory of mind? In: Zahavi D, Grünbaum T, Parnas J, editors.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self-consciousness: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2004.
- 33) Trevarthen 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early infancy: a description of primary intersubjectivity. In: Bullowa M, editor. *Before speech: the beginning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1979.
- 34) Gopnik A, Meltzoff AN. Words, thoughts, and theories. Cambridge, MA: The MIT Press;1998.
- 35) Stern DN. The interpersonal world of the infant: a view from psychoanalysis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Karnac Books;1998.
- 36) Turella L, Pierno AC, Tubaldi F, Castiello U. Mirror neurons in hu-

- mans: consisting or confounding evidence? *Brain Lang* 2009;108:10-21.
- 37) Gallese V. Intentional attunement: a neurophysiological perspective on social cognition and its disruption in autism. *Brain Res* 2006; 1079:15-24.
- 38) Agnew ZK, Bhakoo KK, Puri BK. The human mirror system: a motor resonance theory of mind-reading. *Brain Res Rev* 2007;54:286-293.
- 39) Emery NJ. The eyes have it: the neuroethology, function and evolution of social gaze. *Neurosci Biobehav Rev* 2000;24:581-604.
- 40) Trevarthen C, Hubley P. Secondary Intersubjectivity: Confidence, confiding and acts of meaning in the first year. In: Lock A, editor. *Action, gesture, and symbol: the emergence of language*. London: Academic Press;1978.
- 41) Baars B, Gage N.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Academic Press;2010.
- 42) Meltzoff A, Brooks R. “Like Me” as a Building Block for Understanding Other Minds: Bodily Acts, Attention, and Intention. In: Malle BF, Moses LJ, editors. *Intentions and intentionality: foundations of social cogni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2003.
- 43) Vygotsky L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1978.
- 44)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 translated by G.E.M. Anscombe. Oxford: Basil Blackwell;1958.
- 45) Raffard S, D’Argembeau A, Lardi C, Bayard S, Boulenger JP, Van der Linden M. Narrative identity in schizophrenia. *Conscious Cogn* 2010;19:328-340.
- 46) Lysaker PH, Dimaggio G, Buck KD, Carcione A, Nicolò G. Metacognition within narratives of schizophrenia: associations with multiple domains of neurocognition. *Schizophr Res* 2007;93:278-287.
- 47) Gonzalez-Torres MA, Inchausti L, Aristegui M, Ibañez B, Díez L, Fernandez-Rivas A, et al. Depersonalization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s, first-degree relatives and normal controls. *Psychopathology* 2010;43:141-149.
- 48) Kean C. Silencing the self: schizophrenia as a self-disturbance. *Schizophr Bull* 2009;35:1034-1036.
- 49) Parnas J, Møller P, Kircher T, Thalbitzer J, Jansson L, Handest P, et al. EASE: Examination of Anomalous Self-Experience. *Psychopathology* 2005;38:236-258.
- 50) Nelson B, Fornito A, Harrison BJ, Yücel M, Sass LA, Yung AR, et al. A disturbed sense of self in the psychosis prodrome: linking phenomenology and neurobiology. *Neurosci Biobehav Rev* 2009;33: 807-817.
- 51) Stanghellini G. Embodiment and schizophrenia. *World Psychiatry* 2009;8:56-59.
- 52) Parnas J, Bovet P. Autism in schizophrenia revisited. *Compr Psychiatry* 1991;32:7-21.
- 53) Mishara AL. On Wolfgang Blankenburg, Common Sense, and Schizophrenia. *Philos Psychiatry Psychol* 2001;8:317-322.
- 54) Cobb-Stevens R. *James and Husserl: the foundations of meaning*. Springer;1974.
- 55) Mohanty J. *Edmund Husserl’s theory of meaning*. Springer;1976.
- 56) Brüne M. “Theory of mind” in schizophrenia: a review of the literature. *Schizophr Bull* 2005;31:21-42.